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3. 판매회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4. 작성 기준일 : 2010년 2월 16일
5. 효력이 발생한 날 : 2010년 2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판매)예정기간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IV. 요약재무정보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70306)

(종류) 클래스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7158	77214	83099	91051	91052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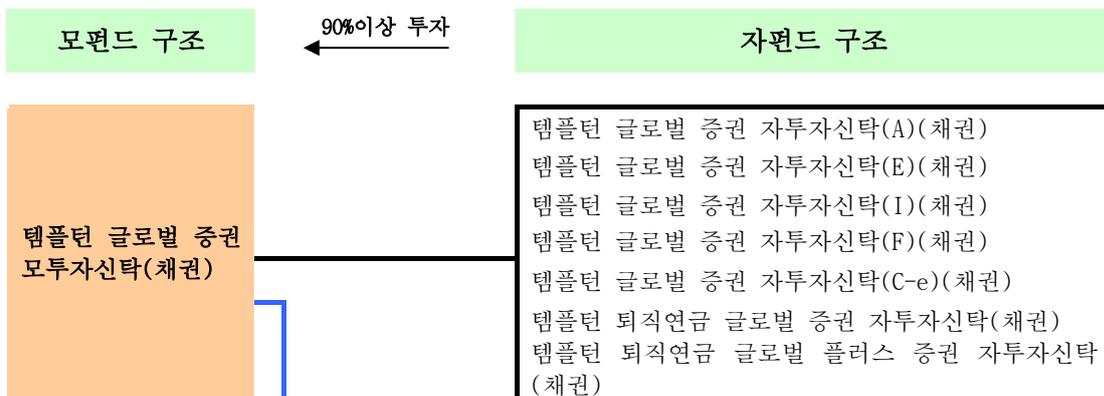
4. 펀드존속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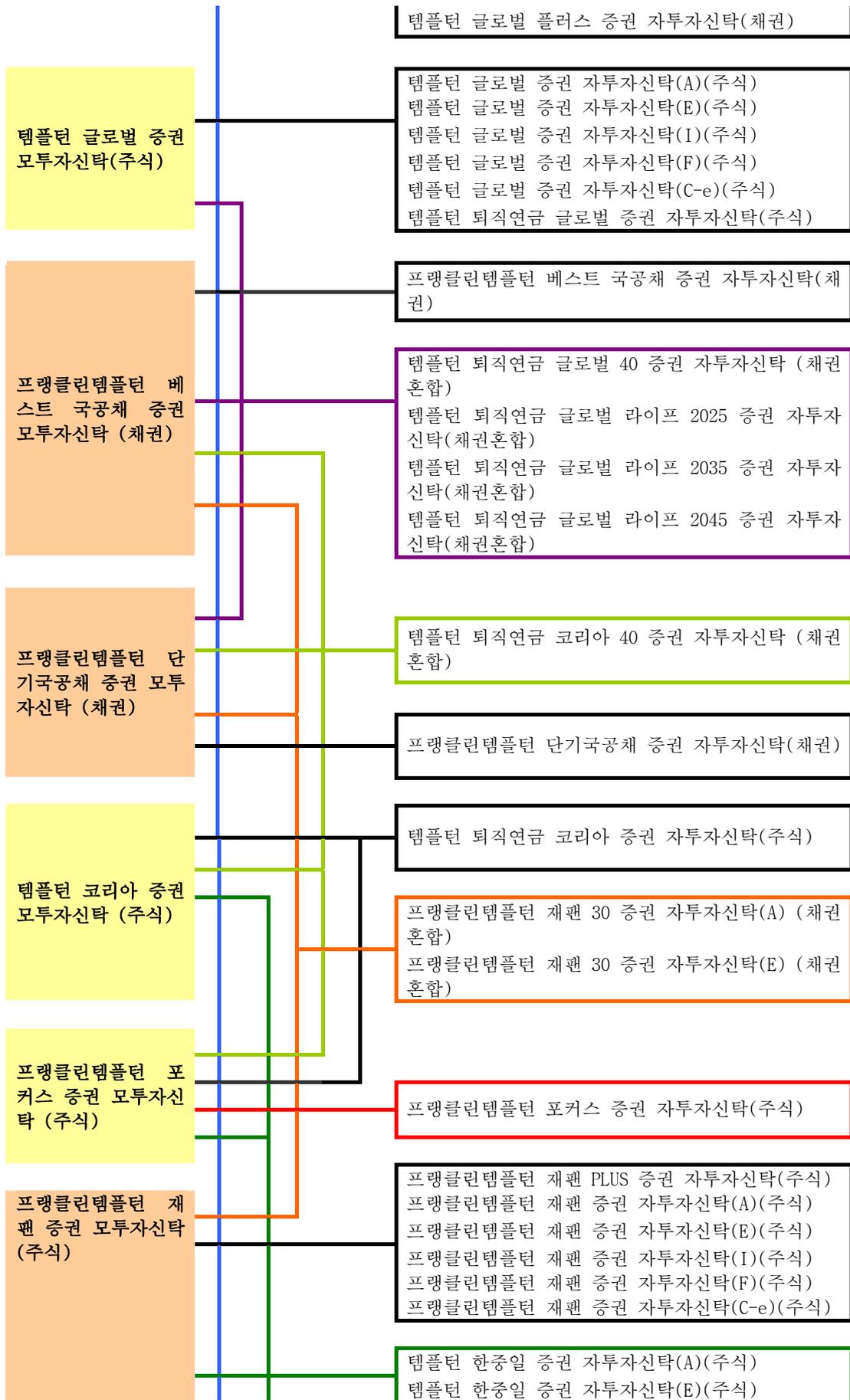
- 주 1)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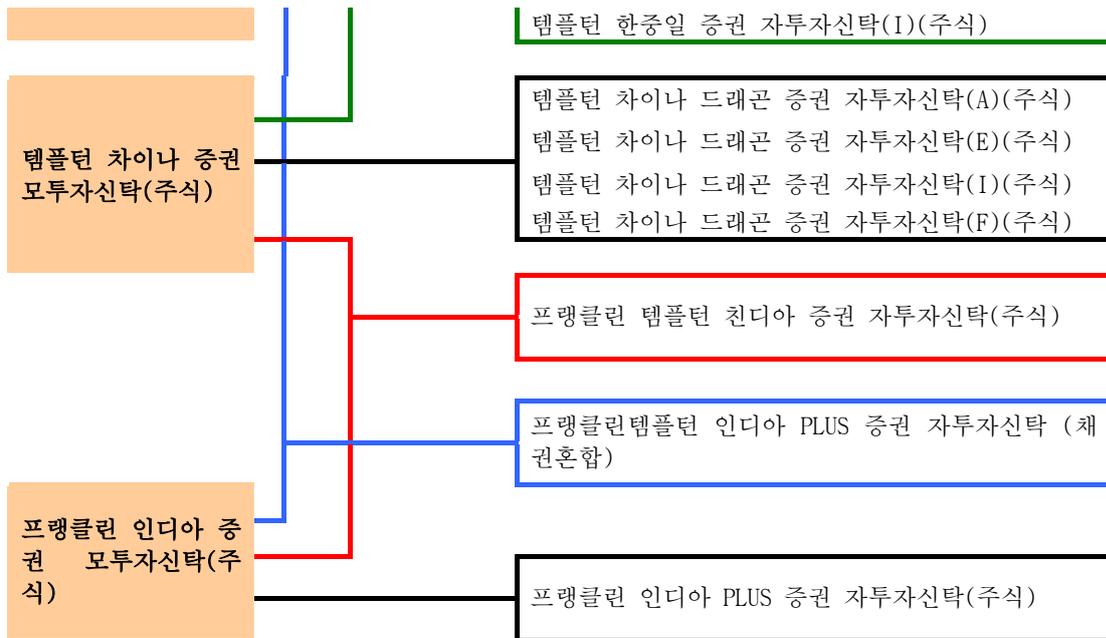
5. 분류

-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당사는 기준가가 외국통화인 모투자신탁에 대하여 해당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 헷지를 수행하지 않는 전략을 가진 자투자신탁에 대하여 명칭에 “PLUS” 또는 “플러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펀드명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프랭클린 어드바이저스 사 [Franklin Advisers, Inc.]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인도 주식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 비교지수 : MSCI India KRW based Index(100%)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인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벤치마크 : MSCI India KRW based Index(100%)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은 Bottom-up 기업분석 및 Value-Oriented Approach를 바탕으로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에 선별투자하여 **인도주식** 등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인도 주식이란:

인도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식, 인도에 등록되어 있거나 인도에서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

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이 인도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를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 증권에 주로 투자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관련통화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등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일국가 투자위험	이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단일 국가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국 고유의 국가위험(country risk)에 노출됩니다. 단일국가 투자위험은 해당 국가의 정치, 환율, 경제 등의 상황, 국가부도위험, 자본이전의 편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나라에 분산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나라에 집중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극대화됩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신흥시장 위험	여러 나라의 기관(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고, 여러 통화로 표시되는 유가증권들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는 특정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합니다. 가령, 포트폴리오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1) 투자 및 본국 송금 제한, (2) 환율 변동, (3) 선진국 대비 비정상적 변동성을 보일 잠재성, (4)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5) 제한적인 투자자 정보 및 엄격하지 않은 투자자 공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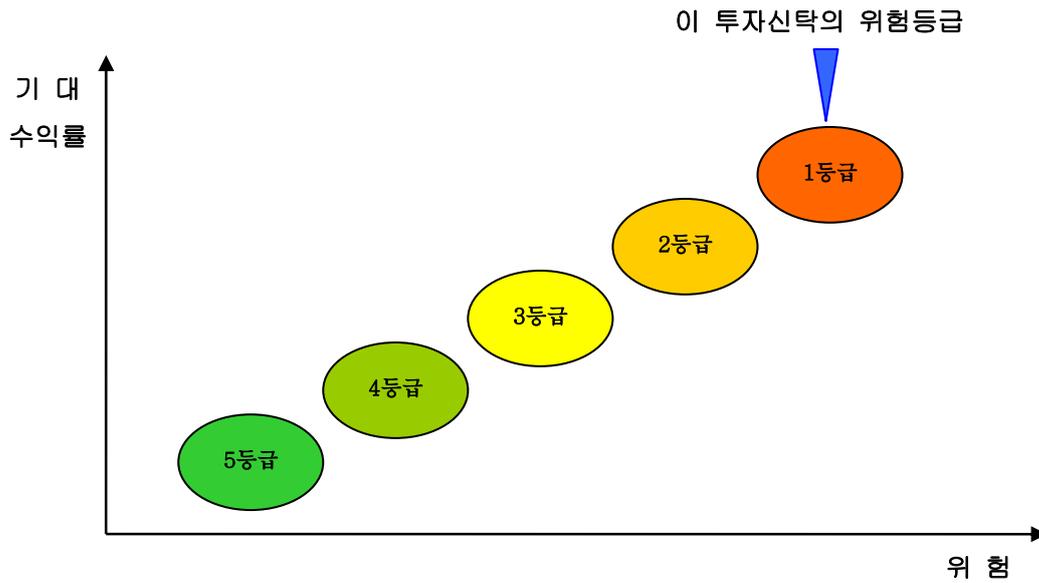
	(6) 선진국 대비 덜 성숙되고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된 증권시장, 즉 펀드가 적정 가격으로 특정 증권을 때로 매도할 수 없는 가능성, (7) 특정 현지 세제상 고려 사항, (8) 증권시장의 제한 규정, (9) 국제 및 지역적 정치경제 변동사항, (10) 외환 규제 또는 기타 현지 정부 법규나 규제 적용 가능성, (11) 디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위험 증가, (12) 펀드의 법적 청구 제한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일까지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대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절차에서 해외시장의 오퍼레이션 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모두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인디아 주식의 높은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펀드보다 인디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클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모두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환헤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통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화에 따라 펀드예상수익률의 추가적 변동이 예상되므로 기준통화 대비 원화 환율의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당사 자체 투자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상대적 위험수준(주1)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펀드의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투자위험 등급입니다. 주식이 아닌 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예상수익률변동성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와 비슷할 경우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사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위험등급에 해당되는 개별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은 아래의 다른 위험등급의 경우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선진국이 아닌 시장, 특정 섹터나 업종들, 코스닥시장처럼 특정목적성을 가진 시장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국내시장이나 선진국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보다 예상수익률변동성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2등급	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두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60% 내외인 주식혼합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그 정도일 때에 해당됩니다.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자산들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그러한 주식혼합형펀드와 유사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보인다면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3등급	중간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세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들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투자등급 이하 국내채권 등

		에의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고위험고수익채권형펀드,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펀드가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증권신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 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네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과 유동성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등급의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5등급	매우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국공채 또는 높은 투자등급의 채권이면서 만기가 매우 짧은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집합투자기구(MMF)들이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은행 CD와 비슷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가진 단기채권형펀드들도 이 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1) 당사의 위험등급은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의 표현에서 "낮은", "매우낮은" 등의 의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사의 5가지 위험등급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그 상대적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매우낮은위험"에 해당하는 위험등급 5의 경우에도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등의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상기에 의한 등급보다 낮은 위험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2009.01.2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	CIO	65개	8,097억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 (2001-현재)	-
백상훈	1972	차장	49개	6,670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2008) 당사 FTMISS팀(2008-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FTMISS운용팀 및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2008.12.31현재)

펀드 매니저	Stephen Dover
--------	---------------

운용 자산규모	약USD \$4.2억
과거 운용경력	FTIF Franklin Asian Flex Cap Fund , Franklin India Fund, Franklin MENA Fund, Franklin World Perspective Fund 등 운용

※ 상기인이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설명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란 해당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 이후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투자신탁-자		(08.02.29~ 09.02.28)	(07.06.14~ 09.02.28)	(07.06.14~ 09.02.28)
	집합투자기구	-23.37	-6.19	-6.19
	참고지수	-41.25	-14.95	-14.95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자투자신탁 CLASS A		(08.02.29~ 09.02.28)	(07.06.14~ 09.02.28)	(07.06.14~ 09.02.28)
	집합투자기구	-25.09	-7.85	-7.85
	참고지수	-41.25	-14.95	-14.95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자투자신탁 CLASS C		(08.02.29~ 09.02.28)	(07.12.17~ 09.02.28)	(07.12.17~ 09.02.28)
	집합투자기구	-25.46	-30.26	-30.26
	참고지수	-41.3	-40.07	-40.07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자투자신탁 CLASS C-e		(08.05.13~ 09.02.28)	(07.12.17~ 09.02.28)	(08.05.13~ 09.02.28)
	집합투자기구	-33.45		-33.45
	참고지수	-47.34		-47.34

주1) 비교지수 : MSCI India KRW based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별 수익률이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투자자산탁-자		(08.02.29~09.02.28)	(07.06.14~09.02.28)
	집합투자기구	-23.37	16.95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투자자산탁 CLASS A		(08.02.29~09.02.28)	(07.06.14~09.02.28)
	집합투자기구	-25.09	16.03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투자자산탁 CLASS C		(08.02.29~09.02.28)	(07.12.17~09.02.28)
	집합투자기구	-25.46	-30.26
프랭클린인디아플러스주식형투자자산탁 CLASS C-e		(08.05.13~09.02.28)	(07.12.17~09.02.28)
	집합투자기구	-27.81	

주1) 비교지수 : MSCI India KRW based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 :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Class A 외 나머지: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F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억 원 이상의 개인 또 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판매사 웹어카운트 6.판매사 특정금전신 탁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20%	연 1.70%	연 1.36%	연 0.10%	연 0.03%
신탁회사 보수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				
기타비용(사유발생시)	0.1453%	0.0022%	실비	실비	실비
총 보수·비용 비율	연 2.18% +0.1453%	연 2.68% +0.0022%	연 2.34% +실비	연 1.08%+실비	연1.01%+실비
증권거래비용	0.3122%	0.0047%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9.02.28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근 설정된 클래스 또는 총 보수비율(기타비용제외)이 해당 클래스와 가장 근접한 클래스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9.02.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주6) Class A와 Class C의 총보수비율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1 개월째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¹⁾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Class A 수익증권	326,444	815,996	1,355,727	2,959,652
	Class C 수익증권	282,356	890,126	1,560,192	3,551,437
	Class C-e 수익증권	253,260	798,402	1,399,421	3,185,477
	Class C-I 수익증권	113,631	358,222	627,883	1,429,239
	Class C-F 수익증권	106,281	335,051	587,270	1,336,79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기타비용 제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현황]

구분	선취 판매수수료	운용회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0.50%	연 0.50%	연 0.4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없음	연 0.50%	연 0.7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없음	연 0.50%	연 0.10%	연 0.05%	연 0.02%

투자신탁(I)(채권)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F)(채권)	없음	연 0.5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C-e)(채권)	없음	연 0.50%	연 0.56%	연 0.0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	없음	연 0.40%	연 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플러스 증권 자투자 신탁 (채권)	없음	연 0.40%	연 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 권)					
-Class A 수익증권	0.50%	연 0.50%	연 0.40%	연 0.05%	연 0.02%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50%	연 0.70%	연 0.05%	연 0.02%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50%	연 0.56%	연 0.05%	연 0.02%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50%	연 0.10%	연 0.05%	연 0.02%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5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A)(주식)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E)(주식)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I)(주식)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F)(주식)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 투자신탁(C-e)(주식)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 식)	없음	연0.70%	연0.90 %	연0.035%	연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없음	연 0.45%	연 0.7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없음	연0.30%	연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없음	연0.35%	연0.50%	연 0.035%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없음	연0.40%	연0.50%	연 0.03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 공채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					
-Class A 수익증권	0.3%	연 0.15%	연 0.10%	연 0.03%	연 0.025%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35%	연 0.03%	연 0.025%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28%	연 0.03%	연 0.025%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07%	연 0.03%	연 0.025%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03%	연 0.03%	연 0.025%
템플턴 퇴직연금 코리 아 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없음	연0.30%	연 0.45%	연 0.02%	연 0.02%

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없음	연0.50%	연0.60%	연 0.02%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0.70%	연 0.50%	연 0.9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없음	연 0.50%	연 1.10%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C-e)(주식)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PLUS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2%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2%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2%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2%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2%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템플턴 한중일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I)(주식)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 식)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9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7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1.36%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90%	연 0.03%	연 0.05%	연 0.03%
프랭클린템플턴 인디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70%	연 0.80%	연 0.05%	연 0.03%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40%	연 0.05%	연 0.03%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20%	연 0.05%	연 0.03%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10%	연 0.05%	연 0.03%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03%	연 0.05%	연 0.03%
템플턴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70%	연 0.75%	연 0.05%	연 0.025%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64%	연 0.05%	연 0.025%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32%	연 0.05%	연 0.025%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10%	연 0.05%	연 0.025%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03%	연 0.05%	연 0.025%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	1.00%	연 0.70%	연 0.75%	연 0.05%	연 0.025%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64%	연 0.05%	연 0.025%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1.32%	연 0.05%	연 0.025%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10%	연 0.05%	연 0.025%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70%	연 0.03%	연 0.05%	연 0.025%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					
-Class A 수익증권	0.3%	연 0.15%	연 0.10%	연 0.03%	연 0.025%
-Class C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35%	연 0.03%	연 0.025%
-Class C-e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28%	연 0.03%	연 0.025%
-Class C-I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07%	연 0.03%	연 0.025%
-Class C-F 수익증권	없음	연 0.15%	연 0.03%	연 0.03%	연 0.025%

2. 과세

※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

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집합투자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 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 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 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미국달러화)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게시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
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
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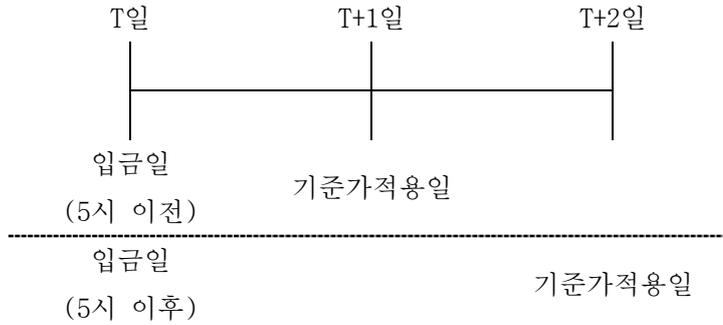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Class C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낮은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lass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판매사 랩어카운트를 통해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6. 판매사 특정금진신탁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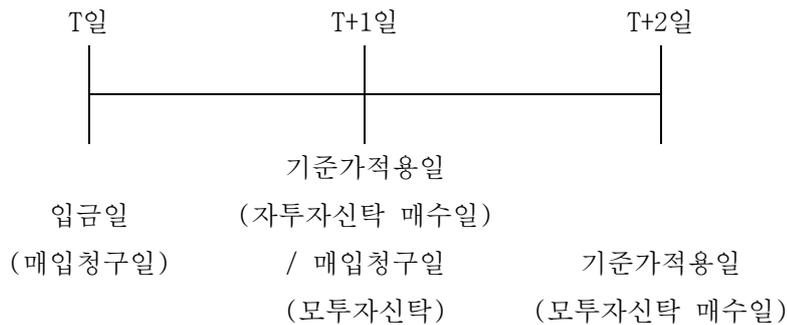
(나)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 원)을 적용합니다.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자투자신탁에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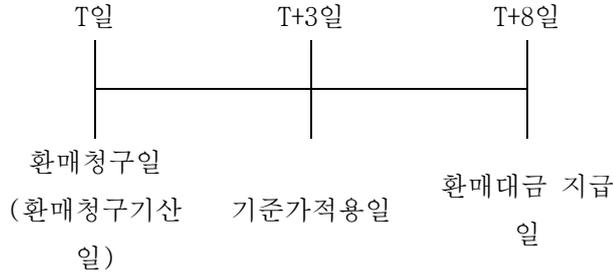
나.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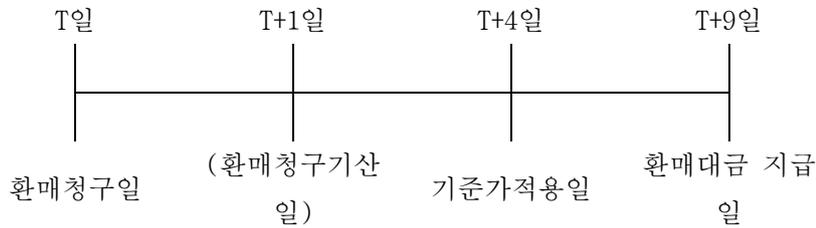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②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⑤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항목	제 2 기	제 1 기
	2008-12-13	2008-06-13
운용자산	0	0
증권	56,651,367,984	97,381,668,867
과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2,697,391,039	563,649,758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59,348,759,023	97,945,318,625
운용부채	1,506,862,846	3,772,848,679
기타부채	0	0
부채총계	1,506,862,846	3,772,848,679
원본	66,700,469,636	87,357,833,613
수익조정금	3,729,746,560	0
이익잉여금	-12,588,320,019	6,814,636,333
자본총계	57,841,896,177	94,172,469,946
항목	제 2 기	제 1 기
	2008-06-14~2008-12-13	2007-06-14~2008-06-13
운용수익	-11,018,829,313	-7,404,527,527
이자수익	33,579,866	60,184,938
배당수익	6,424,330,002	0
매매/평가차익(손)	-23,461,069,092	-7,491,588,782
기타 수익	5,984,329,911	26,876,317
운용비용	23,976,016,552	91,985,446
관련회사 보수	0	91,428,024
매매수수료	119,756	557,422
기타 비용	23,975,896,796	0
당기순이익	-16,945,700,252	-7,496,512,973
매매회전율(%)	0	0

※ 동 증권 투자신탁 데이터 산출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기존펀드명을 사용하였습니다.